

주간 변화와 소통

홈페이지: kttu.or.kr

트위터: twitter.com/kttu_kr

주사위는 던졌다!

주파수경매 본격 막 올라 ... 중순부터 피말리는 싸움 예고



지난 2일, 이통 3사의 신청서접수가 마무리되면서 주파수경매가 본격 막이 올랐다. 솔한 가능성과 의혹으로 통신시장을 뜨겁게 달군 지 서너 달. 이동통신 3사는 주사위를 던졌고,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이달 중순부터 말까지, 누가 어떻게 목적지에 닿을 지만 남았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경매시간과 장소, 1일 라운드 수, 최소입찰증분 등 구체적 세부내용에 대해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식이지만, 8월 중으로는 경매를 완료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6월 28일, 그토록 기다리던 미래창조과학부의 주파수 경매안의 뚜껑이 열리자 KT는 황망했다. KT인접대역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경쟁사의 담합을 교묘하게 묵인하는 불합리한 경매안이자, KT에만 엄청난 희생이 '가능'한 세수확장책이라 해석됐기 때문이다. KT노동조합은 즉각 움직였다. 수 조원의 경매대금은 결국 조합원의 고용, 복지를 담보할 수 없는 희생과 국민의 통신요금 전가로 이어질 게 뻔하지 않은 가. 따라서 그룹노조차원에서 7월 2일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지난 40여 일 동안 대규모 집회와 선도

투쟁, 국회와 새누리당 방문, 1인 시위, 국회 상임위 의원 면담 등을 전개해 왔다.
 대단한 것을 바라는 게 아니다. 조합요구는 단지, '공정하게만 하자' 이다. KT노동조합은 현재도 1인 시위와 투쟁속보를 통해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투쟁은 주파수경매가 끝나는 날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어쨌든 신청은 다 했다!

언론에서 각사의 유불리를 따지는 경매전략이 쏟아져 나오지만, 어쨌든 이통 3사는 8월 1,2일을 전후해 모두 신청을 마쳤다.
 주파수 경매에 참여하려면 최저 입찰금의 10%를 보증금으로 내야하는데, KT도 앞서 접수한 경쟁사들과 마찬가지로 최저입찰가가 가장 높은 1.8GHz 35MHz 대역(밴드플랜2 C2블록) 6,738억원에 대한 보증금을 지불했다. KT인접대역 1.8GHz 15MHz 외에 2.6GHz 40MHz와 1.8GHz 35MHz에도 입찰할 수 있는 기회를 챙기기 위해서다.
 이날 접수자리에서도 KT는 "경매방법이 불리해도 주파수를 받지 못하면 경쟁력에서 뒤처지기 때문에 참여를 결정했다"며 경쟁사의 담합가능 여지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논란의 A부터 Z... 핵심은 KT와 D블록

이번 주파수 할당은 2.6GHz대역의 40MHz폭 2개(A·B블록), 1.8GHz 대역 35MHz폭(C블록), 1.8GHz대역 15MHz 폭(D블록) 등을 밴드플랜1과 2로 구분해 옴입찰(50라운드)과 밀봉입찰(1라운드) 두 방식을 섞은 혼합경매로 진행하는 것이다. KT의 인접주파수 대역인 D블록은 밴드플랜2에만 포함돼 있다.
 미래부는 현재 신청 통신사업자들의 부합여부, 무선국 개설결격사유 해당여부 등 신청자들에 대한 적격심사에 착수했다. 이에 늦어도 8월 중순부터 경매

가 시작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논란의 핵은 KT가 인접대역인 D블록을 가져가는 지, 또 경쟁사는 이를 어떻게 막아내느냐다.

KT가 이미 사용중인 주파수 대역과 인접한 D블록을 경매로 차지하게 되면 이미 경쟁사들이 개시한 LTE-A보다 우월한 광대역 LTE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또 굳이 LTE-A 전용단말기를 구입하지 않아도 2배 빠른 속도가 가능하다.

그러나 KT가 D블록에 시장평가 이상의 터무니없는 값을 지불하게 된다면, '승자의 저주' 논란이 나올 수 있다. KT노동조합은 바로 이 점을 가장 우려하여 주파수할당 부당경매 철회촉구 투쟁을 전개하는 것이다.



삼척동자도 예측가능한 먹튀와 담합, 배신이 도사리는 경매안

같은 주파수 대역임에도 밴드플랜에 따라 경매 가격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은 누가봐도 고개를 갇우뚱할 수 있는 문제다. 두 경쟁사가 밴드플랜 1에서 경매가격을 높이다가 밴드2로 갈아타 해당 주파수를 저가로 가져가는 꼼수를 제도적으로 묵인 하는 것과 다름없으니 말이다. KT노동조합이 끈질기게 지적하는 것도 바로 이 담합과 먹튀 가능성이다.

더욱이 SKT와 LG유플러스가 끝까지 반 KT진영에 설치는 불투명하다. C블록을 놓고 두 업체간 이해가 엇갈릴 수 있어서다.

밴드플랜1의 C블록에는 LG유플러스만 입찰할 수 있게 했지만, SKT 역시 밴드플랜2의 C블록을 가져가면 광대역 주파수를 구축할 수 있게 된다. 이름만 1,2로 나뉘었지 사실상 같은 주파수대역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SKT는 1.8GHz 대역과 2.6GHz 대역 모두 나쁘지 않아 보인다. 1.8GHz C를 확보하면 광대역 LTE

서비스와 기존 대역을 활용한 LTE-A 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수 있고, 2.6GHz 대역 B블록도 유럽 등 많은 국가에서 LTE주파수로 활용하고 있어 투자할만하다. 결국 KT의 D블록 확보를 저지하면서 밴드플랜2의 C블록 등을 적정가로 확보하는 게 최선의 시나리오로 보여진다. LG유플러스는 KT의 D블록 저지에는 뜻이 같지만 밴드플랜2로 가지 않는 게 유리하다. 밴드플랜1의 C블록에는 LGU+만 단독 입찰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덧붙여,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이지만 이번 경매가 단순히 끝날 것이란 시각도 있다. SKT가 밴드플랜 2의 A블록이나 B블록에 입찰하고 LG유플러스가 C블록, KT가 D블록을 동시 입찰하면 말도 많고 탈도 많던 경매는 조용히 끝이 난다.

1라운드, 2라운드...50고개 + 밀봉입찰

주파수 경매는 이통 3사가 계속 입찰액을 높여 50 차례에 걸쳐 경매가격을 써 내는 방식으로 1라운드가 진행된다. 2개의 밴드플랜 가운데 총액이 높은 쪽이 낙찰되도록 설계됐기 때문에 경매 가격은 기본적으로 상당히 높을 것이라는 게 전반적 예상이다. 또 50라운드 1단계에서 낙찰자가 정해지지 않으면 밀봉입찰 방식으로 2단계가 진행된다.

나아가 KT 인접대역과 C블록 등을 놓고 벌어지는 업체간 담합이 가시화되면, 경매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을 수 있다.

경매가가 2조원까지 치솟아 주파수 확보에 따른 실익이 적을 경우 KT가 스스로 포기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그러나 누가 보더라도 KT는 주파수 이용권이 당장 급한 입장이라는 게 걸림돌이다.

최소입찰증분 낮을수록 낙찰가 부담도 덜해

세부시책 중 3사가 가장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지점은 최소입찰증분이다. 미래부는 현재 3% 이내에서 결정하겠다고 밝혔으나 구체적 비율을 확정하지 않았다.

최소입찰증분은 라운드별로 올릴 수 있는 금액으로 전 라운드 패자가 경매를 지속하기 위해 한 라운드당 걸어야 하는 돈의 비율을 뜻한다. 따라서 최소입찰증분이 낮을수록 라운드를 거듭해도 최종 가격의 오름폭이 크지 않게 된다.

경매가 50라운드까지 진행되기 때문에 증분비율이 1%만 올라도 낙찰가가 수천억원 이상 치솟을 수 있다. 물론, 각 사의 경매전략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최소입찰증분은 안전장치가 될 수도, 무기가

될 수도 있는 셈이다.

2011년, KT와 SKT가 맞붙었던 1.8GHz 20MHz 첫 경매 당시 최소입찰증분 비율이 1%였다. 전 라운드 패자는 1~10%까지 적을 수 있었다. 양사는 라운드당 1%씩만 올렸고, 경매는 83라운드까지 진행됐지만, 초기값의 2배가 조금 넘는 9,950억원에 SKT가 낙찰받았다. 만약 최소입찰증분이 2%였다면, 2조원까지 부추기는 '무기'로 작용했을 것이다.

따라서 이번 경매에서 최소입찰증분이 적을수록 유리한 것은 KT다. 물론 최소입찰증분씩만 각사가 가격을 올린다는 전제조건이 붙지만, KT는 라운드별 상승폭을 최소화하는 것이 D블록을 최소값으로 가져올 수 있는 안전장치이다.



노동조합, 경매 끝날까지 공정성 외치며 함께 달린다!

기업간 잇속이 다르다 보니, 깃발을 들고 나선 KT그룹노동조합을 바라보는 시각도 다양했다.

조합이 나선 이유는 명백하다. 공공재인 주파수 이용권 경매의 공정성을 촉구해 지나친 출혈을 막자는 것이다. 8년간 나눠 낸다고는 하지만, 이번 주파수 경매에 한 해 영업이익 이상을 쏟게 되면, 조합원의 고용과 복지향상이 어려울뿐더러 장기적으로 통신요금으로 전가하지 않으란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재벌오너기업과 달리 정권이 바뀔 때마다 외풍을 겪는 KT의 주인은 바로 조합원과 국민이다. 따라서 고객인 국민입장에서든 통신 조합원의 입장에서든 당연한 요구인 셈인데 미래부는 뒷짐을, 경쟁사는 폼하하기 바쁘다.

KT그룹노동조합의 요구는 지난 40일간의 투쟁에서도 보여주듯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공정성'이다. 미래부는 더 이상 눈과 귀를 닫는 파렴치한 고집스러움을 고수해서는 안될 것이다.

역사는 모두 기억하고, 심판은 국민의 몫이다. 3/3